

보물이던 완주 화암사 극락전 국보 승격

국내 유일 목조 하양 양식

국내 유일 하양 양식의 목조 건축물인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9월 8일 보물 663호인 화암사 극락전(1605년 중건)을 국보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예고했다.

화암사 극락전(오른쪽 아래 사진)은 화암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맞배지붕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하양식(下昂式) 건축물로 그 가치가 높다.

하양은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바깥쪽에 하나 더 설치해 일반 건물보다 처마를 더 길게 내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적(多包式) 건축 양식 중 도리 바로 밑에 있는 살미라는 건축 부재를 서까래와 같은 기둥 기 지렛대 형식으로 떠받치는 건축

양식으로 이 같은 하양을 사용한 건축물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됐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실물은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하다. 화암사 극락전 전면의 하양은 용머리 모양이 투각되어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백제시대 청동제 소탑 조각과 간송미술관 소장 금동불감에서 하양 구조를 볼 수 있으며, 백제 장인들에 만들었다는 일본 호류지(法隆寺)의 금당과 5중탑(五重塔)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라보다는 백제에서 성행한 건축 양식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981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극락전은 정유재란 당시 피해를 당한 이후 1605년 중건됐다. 국보 지정은 한 달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노덕현 기자



완주 화암사 극락전 단집



극락전 전경(위), 극락전 배면 귀포(아래)

80년대 발행했던 '무등' 지 합본호로 다시 출간

80년대 치열했던 광주 지역의 모습을 담은 책자가 다시 선보인다. 광주의 80년대는 암울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올바른 불교적 지성과 사회적 저항을 하며, 한편의 글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광주지역의 유일한 불교사회지인 '무등' 지가 합본호로 다시 만들어진다.

전두환 정권이 한창이던 80년대에 광주에서 당시 문민정사 주지였던 지선 스님과 광주지역의 불교활동가들에 의해 발행됐던 불교소식지인 '무등' 지 33권을 합본호로 만들어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문민정사에서 봉헌식을 갖는다.

행사는 1부 범요식과 당시 발행인이었던 지선 스님의 범문 2부에는 기념촬영 및 환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무등지 봉헌식은 그동안 잊혀졌던 80대의 아픔과 당시 치열했던 상황에서도 굳건히 광주의 아픔을 담아내고, 또한 부처님의 지혜로 바른 길을 열어나갔던 유일한 불교소식지였던 '무등' 지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새겨 보고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도 무일학원 장학제도 대폭 확대

경북 청도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가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등 과격적인 장학제도를 시행한다.

학교법인 무일학원 이사장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회주)은 9월 8일 2012년부터 중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학 스님은 이서 중학교 재학생 74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무일학원은 2012년 2월까지 기숙사를 신축해 고교생 전원과 원거리를 통학 중학생을 입소시킬 계획이다.

스님은 "고교 재학생에게는 매년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며 "매년 11명의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해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선화여고, '동곡학원 장학금 수여식'

학교법인 동곡학원(이사장 둔관)은 9월 9일 경북 영천 선화여고(교장 이대웅) 대강당에서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곡학원은 재학생 200명에게 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선화여고 출신 동곡대 재학생 3명에게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둔관 스님은 "내년에도 전·후반기에 각각 6000만원 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급식시설 현대화와 학교 기숙사 신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나무숲. 1박 2일 문화체험행사 실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1박 2일간 전국의 명찰과 문화공간을 찾아 그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무등)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1박 2일간 '제1회 자따마따' 행사를 실시한다.

자따마따란 자연따라 마음따라를 줄인말로 이번 제1회 자따마따에서는 부산 하연연꽃길, 쇠미산, 태종대, 광안리, 해운대, 부산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도교사와 자원활동가 8명이 동행하며,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대신해 과일과 고구마 등이 간식으로 제공된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남은 한가위 나눔도 풍성

한가위를 맞아 전남지역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펼쳤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 진옥, 여수 석전사 주지)가 운영하는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신미경)은 9월 16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1 풍성한 추석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여수지역 4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양장열 남도정가진흥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이 가야금 병창, 무용, 판소리 등 공연을 선보였고, 여천 NCC 지원으로 효도급식과 송편빚기 프로그램, 명정선물 증정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 후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지역 독거어르신들을 찾아 노인돌봄활동가 48명이 빛은 송편과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고 여수산업단지 한화물류팀, LG화학 PVC공장팀 등의 후원으로 조순가정에 목욕서비스와 제수음식을 전달했다.

추석을 맞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병석(78) 씨는 "집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외롭고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합동차례를 지내고 멋진 공연을 보게돼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꽃어린이집 차례지내기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차례상 예절을 배우고 있다.

신미경 관장은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어르신들을 비롯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진옥)도 한가위를 맞아 9월 7일 '우리의 행복도 한가위만 같아라'를 주제로 지역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국악과 민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렸다.

여수의 대표적인 불교어린이집인 연꽃어린이집(원장 이경민)도 차례

지내기 수업을 통해 전통상 차리는 법과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업에는 6세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직접 올리고 전통 예법에 맞춰 차례를 올리며 전통문화를 익혔다.

여수 소나무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현공)도 9월 7-8일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는 주제로 추석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7일 행사에서는 송편만들기 요리교실, 추석차례지내기, 추석음식 나눠 함께 즐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8일에는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옷돌이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화순 도원사(주지 진철)는 사람 개원 5주년을 기념하고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도원사 내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가수 김용남, 정현, 정주호, 진주아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출연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철 스님은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많은 이들이 이들에게 큰 힘을 주어 장차 이 나라의 큰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08 순례, 이주여성들과 인연맺기

서울 도선사 해사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순례단' 1600여 명이 9월 15일 경북 영천 은해사를 찾았다.

추석을 맞아 은해사를 찾은 108산사 순례단은 108기도법회와 함께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 인연맺기,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16, 17일에도 추가로 3200여 명이 은해사를 순례했다. 도선사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1996년 9월부터 매달 전국사찰을 돌며 농촌사랑운동을 벌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08산사 순례단 참가자들이 이주여성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숙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곱광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돌면서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